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Spring / Summer 2020 Vol. 23

코로나 상황 이후의 선교변화
Post COVID-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표지사진

COVID-19 필리핀 긴급 지원 현장

CONTENTS

3

Intro

TIM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충희 본부장

Special Issue

Post COVID-19 - 코로나 상황 이후의 선교변화

7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의 한국교회의 선교

최형근 교수

14

모든 길은 막혔지만, 하늘 문은 열려있다

이요한 선교사

19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다

손충성 선교사

24

코로나 이후 선교:

위기 아닌 기회로 보는 영적 통찰력 가져야

한충희 본부장

Global Issue

34

난민선교의 문틈 사이로 부는 바람

이빛 선교사

37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김병순 장로

39

열방을 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영광 선교사

Home Issue

46

하나님의 군사, 선교사로 평생 헌신합니다

FA18기 수료자 이예지

50

내가 변하고, 열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FA18기 수료자 신아영



INTRO

2020년 1월부터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을 맡게 된 한충희 목사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바로 TIM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00여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50개국 이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맡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빌4:6-7)으로 우리는 여전히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막16:15).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줄 변화가 적지 않겠지만 선교의 본질과 하나님의 주도성은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돌아보고(revisit) 근본적으로 성찰하라는(bottom-up review) 하나님의 웨이크업콜로 느껴집니다. 예배와 제자양육과 교회개척 등 선교지에서의 모든 사역에서 불필요하고 부차적인 가식과 형식을 털어버리고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며(욥23:10)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욥42:5) 더 나아가 손으로 만지는(요일1:1)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호부터는 보다 정책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아 그 호의 특집으로 다루도록 했으며, 이번 호에는 ‘포스트코로나 선교’에 대해 전문가의 특별기고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 잡지가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TIM의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선교지에서의 실시간 변화의 추이를 센터링하고 공유하며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국내 전문 신학자를 통해 이론화하거나 체계화함으로써 새로운 대응 방향을 신속히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호부터 책 사이즈는 조금 축소하고 글자크기는 늘렸고 컬러 인쇄 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편집을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잡지의 내용과 제본 등 편집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이나 제언들을 활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소식도 자주 보내주시기 바라며 원고 요청을 받으실 경우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거품을 빼고 선교의 본질에 더욱 다가가는 기회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이 잡지를 읽는 선교 커뮤니티에 속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희 목사 /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スラーブル式
渋谷駅前
Shibuya Sta.



東京メトロ
Tokyo Metro

渋谷線
Shibuya Line

渋谷駅
Shibuya Sta.





Post COVID-19

코로나 상황 이후의 선교변화



SPECIAL ISSUE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의 한국교회의 선교 / 최형근 교수

모든 길은 막혔지만, 하늘 문은 열려있다 / 이요한 선교사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다 / 손충성 선교사

코로나 이후 선교: 위기 아닌 기회로 보는 영적 통찰력 가져야 / 한충희 본부장



Korean Church Mission after the Corona Virus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의 한국교회의 선교

최형근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21세기에 인류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감염이 확산 되기 바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예측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며 인류의 장밋빛 미래와 유토피아를 예측했다. 호모 데우스(Homo Deus)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질 정도로 인간이 축적한 과학기술과 영원불멸을 향한 한계를 모르는 인간 욕망의 상승작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과 고통, 의료체계와 환경 문제,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미래, 빈곤과 억압, 폭력과 난민,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와 새로운 영성 같은 수많은 의제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화의 역설에 직면한 인류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질문이 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뇌와 심장조차도 자기중심적이며 끝없는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몽주의 모더니즘 세계관이 가져다 준 인간문명의 끝없는 진

보와 발전이라는 낙관적 사고방식과 유토피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이고 철학적 비관적 허무주의와 디스토피아를 지나 오늘날 절망적인 실재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눈 앞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문명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고 전복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희망에 대한 전망이며 동시에 의구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는 시장을 확대하고 인간의 권리를 신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경제적/기술적 제국주의를 태동시켰으며, 종교적 근본주의의 발흥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글로벌 질병들과 빈곤의 심화, 테러리즘, 인종 간 갈등,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 초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화의



It is argued that this pandemic will be one of the biggest striking events in human history in the midst of forecasts that new standards will be set before and after COVID-19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기준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의 뿌리는 창세기 11:1-9의 바벨탑 사건으로서, 그 경향은 타락한 인간의 죄와 자기중심성이다. 바벨탑 이야기와 오늘날 세계화의 유사성은 인본주의적 문화와 종교, 자기중심주의(자민족 중심주의)와 교만,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끝 없는 진보와 낙관주의(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나는 세계화의 역설은,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종족들이 흩어지고 폭력과 죽음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기준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HIV/AIDS처럼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endemic virus)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화를 원치 않고 안정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원한다. 변화는 위험을 동반하며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과 희생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는 외부에서 기인한 파괴적 변화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기인한 인간존재의 심연을 뒤흔드는 불안을 초래하는 변화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보다 심화된 전 세계적인 빈곤, 전쟁, 종족 간 갈등, 질병, 환경과 생태적 위기는 더욱 첨예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예컨대, 생태학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전 세계의 공장들이 일시에 가동될 경우, 집중적 환경오염은 지구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논쟁으로 인한 갈등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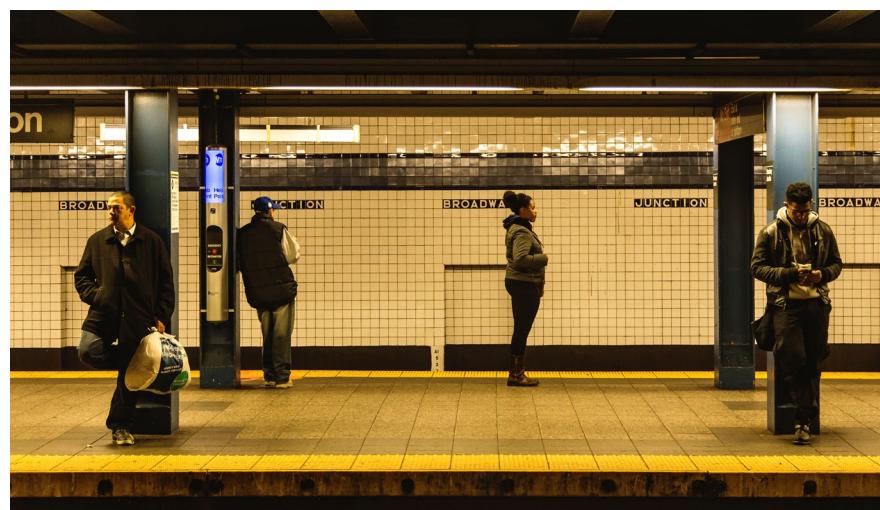
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갈등의 핵심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책임을 물어 “희생양”을 만들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과 권력에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임계점을 넘어서 파괴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양상들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 그리고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의 차별을 불문하고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효과는 타자에 대한 포용과 환대보다는 지배와 제거 그리고 빙곤층과 난민을 양산하고 있으며, 폭력과 테러, 국제 이주노동자 문제, 그리고 인구와 환경문제로 인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오래 전에 세계화가 가져온 이익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이미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그리고 생태 환경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일경제, 단일 네트워크, 인공지능, 일일생활권 글로벌 교통망, 상호연결, 상호연계성, 상호협력이라는 주장에 은밀하게 내재된 환상은 인간존재의 이기심과 자민족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

적, 종교적, 인종적, 계층적 거리두기가 인간의 타락한 내면 속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허무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인구감소는 예측한 것 이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율이 감소되고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즉 고령층에 대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가파른 증세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증폭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인구정책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 부족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 전반을 덮칠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증대로 인한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전 정부들과 현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실패로 인해 사



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즉 고령사회(사망률 감소), 세계 최저의 출산율, 학교 폐쇄, 농어촌 지역 소멸, 세계 최저의 행복지수 등의 현상들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이후 이런 현상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런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그리고 생태 환경적 상황에서 교회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



첫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다.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선교적으로 교회가 겪은 가장 심한 아픔은 예배와 연관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는 구약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교회와 바벨론 포로기의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상황이라는 제한기의 예배공동체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예배와 연관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시공간에서 체험하는 거룩함이라는

기독교 예배라는 실재의 축소는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예배의 변화와 축소는 젊은 세대의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단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대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배의 변화와 공동체의 해체적 경향의 심화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가운데 하나인 “성육신” 개념의 약화를 초래한다. 글로벌 통신망의 확산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탈육신적” 사고와 삶의 방식의 확산은 몸의 중요성과 공동체성의

We need a long-term mission strategy and mission platform to strengthen the community of young people, to realize the discipleship concretely, an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mission mobilization.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공동체성 강화와 제자도의 구체적인 실현, 그리고 선교동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선교전략과 선교 플랫폼이 필요하다.

약화를 초래하고 온라인을 통한 몸의 상품화와 성적 욕구의 왜곡된 표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초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예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결과는 이태원과 홍대 유흥가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낳았다. 실제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변화는 교회 재정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아마도 해외 선교일 것이다.



국 간의 새로운 냉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항공망의 침체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단기선교 여행, 선교훈련, 선교지 전략회의 및 선교 컨퍼런스, 미전도 종족 중심 선교 등)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입국비자 거부와 선교사 비자발적 철수가 다른 지역들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현장 중심의 선교가 다시 회복되기 까지 선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ZOOM,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간접 사역을 위한 선교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 연장교육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학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다른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인구문제는 교회의 성장정책과 교인 수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인구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회의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공동체성 강화와 제자도의 구체적인 실현, 그리고 선교동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선교전략과 선교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탈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와 미국과 중

셋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난민, 국제 이주 노동자, 환경 문제에 직면한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기존의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의 확장보다는 구호와 개발, BAM,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 선교와 같은 총체적 선교사역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유입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 타자(외국인 노동자와 빈민,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글로벌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국가 및 종족들)에 대한 환대의 신학적/철학적 숙고와 적극적 실천은 교회의 선교를 측정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인력들을 위한 멤버케어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킬 것이다. 후원교회와 선교단체와 그리고 선교사 케어단체의 협력과 공동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위기상황에서 선교인력에 대한 예방적 케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요청된다. 글로벌 차원의 여행과 항공교통망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국내로 귀국한 선교사들과 선교현장에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멤버케어에 대한 논의와 효과적인 적용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은 교회의 선교에 중대한 기회로 다가온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소모적인 경쟁과 가시적인 효율성 중심의 선교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동반자협력(partnership and networking)을 통해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달려 있다. 모든 차원에서 글로벌 거리두기(global

distancing)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음은 모든 하나님 의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종말론적 차원을 담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계적 현상으로 항상 급진적이며 근원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성육신적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현된다. 세계화의 특징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들인 공동체, 단순한 삶의 방식, 그리고 제자도와 청지기직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기독교 선교를 효율성과 성과를 나타내는 크기와 수자로 환원시킨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복음의 전염적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세계화의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구속적 세계화”(redemptive globalization)를 확인하고 기쁜 소식과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인본주의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행위에서 나온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나온다.





All Roads are Blocked, but the Door to Heaven is Open

모든 길은 막혔지만, 하늘 문은 열려있다

이요한 선교사 / 몽골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으로 내몰고 있다. 문명사의 대 전환을 가져올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교의 후퇴를 가져올까, 아니면 선교의 진전을 가져올까? 현 사태를 관망해 볼 때 분명히 선교에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는 법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엄청난 세계적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기회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몽골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체주의적인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몽골 정부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자국의 국경을 폐쇄하였다. 국경을 마주하고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과도, 수만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과의 문도 닫아버렸다. 국경 폐쇄 조치는 비단 몽골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교 환경의 변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몽골 사회와 교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몇 가지 몽골의 주요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의 선교지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예측해 본다.

국제 외교의 거장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 (walled city)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세계적인 석학들 또한 미래에는 보다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두고 폐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몽골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교회에 대해 더욱 강



Mongolia also spends more time with family members in the house. In response, Mongolian churches are conducting online worship services, house churches, and small group gatherings.

몽골도 집안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몽골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와 가정 교회, 소그룹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력하게 조처하고 있는데 예배와 함께 소그룹 모임까지 전면 금지했으며 교회 출입 자체를 아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도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몽골 교회들은 자구책으로 온라인 예배와 가정 교회, 극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 모임보다 가정이나 소그룹 중심의 삶이 사회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몽골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몽골 교회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와 교회 건물 중심의 예배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예배당의 예배가 차단되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인식들이 서서히 변화되어가고 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도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의 주요 선교 대상이자 전 세계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이슬람 세계에도 이런 인식에 변화의 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모스크 사원과 성직자 중심의 이슬람 예배 의식은 사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종교의 3대 요소였던 성전과 성직자, 예배 의식에 대한 일대 전환은 개신교나 가톨릭, 이슬람 할 것 없이 향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걸쳐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교회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와 양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몽골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인터넷 상태가 열악한 편이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고, 교육, 사업, 소비, 공연 등 많은 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도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의 대처와 준비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선교에 있어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려 온 위기인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필자는 상기한 선교적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의적인 접근 방법의 다양화이다.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선교적 과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더 국가주의로 회귀하면서 기존의 근본주의적인 흐름과 함께 자국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글 가능성이 크다. 선교는 비자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In his book, “The Corona Virus and Christ,” Pastor John Piper emphasized, “When it comes to missions, Corona 19 may be in a crisis to whip us into an idle life.”

존 피퍼 목사는 그의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선교에 있어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려 온 위기인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현지인 중심으로의 사역 전환이다. 코로나19는 외국인에 대한 배척 심리를 더욱 심화시킨다. 몽골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우리는 유럽과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보여 준 아시아인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냉랭한 시선들을 기억한다. 선교사는 이방인이지 터줏대감이 아니다.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방인으로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떠난 후에도 충격을 최소화하여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가야 한다.

셋째, 가정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의 강화이다. 위급 상황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소 세분화된 모임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한층 강화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존 웨슬리가 시도했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선교지는 지역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전통적인

교회보다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이다. 대면 접촉을 통한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면 비대면 접촉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전도와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 팀도 조직하고 화상 회의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모든 선교 전략과 실행을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 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내 빼고 다 바꿔라” 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일성과 같이 우리는 늘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분명 제약이 많은 위기의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선교를 바라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KENDER KEBAPCIS

TAC
PERDE
GİPÜR

TAC
PERDE
GİPÜR

TAC
PERDE
GİPÜR

MAYA
TEKSTİL

TAC
LINEN

SABRİ ÖZEL

SUN SURF
SWIMWEAR

SAKO
JEANS
MOL

Hilal İpek
'Eşarp Market'

34 FA 50



Go Back to the New Old Days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다

손충성 선교사 / T국

T국에서 사역을 한 지도 벌써 21년째가 되었다. 요즘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일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매일 아침마다 인터넷 신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한다. T국은 지난 3월 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긴급뉴스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백화점과 비롯한 모든 상점들, 식당들, 이발소와 미용실까지 모두 가게 문을 닫게 했다. 65세 이상과 20세 이하는 거리로 나오는 것을 금지했고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허가서 없이는 누구도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스크도 문을 닫고 기도하러 오는 신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뉴스들이 계속되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 성도들과의 소그룹 모임도 종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마치 도시가 정지된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주중 성경공부와 양육은 화상 앱을 통해서 하

고 있고, 주일 모임은 30여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정 별로 또는 홀로 고립되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 셀리더들이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 음성을 녹음해서 큐티나 찬양, 한 주간의 감사제목 등을 계속 나누면서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처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달째 모임을 지속하며 주중 모임과 예배는 현지인 위주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면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집 안에만 갇혀있어야 한다는 것의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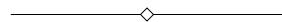
코로나19는 전혀 예상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역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는 이 상황이 종료되면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는 듯이 바로 이전 생활방식과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는 대부분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되, 코로나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에 밝맞추어

In T-country, these changes are expressed in the words “going back to the old days”. So I thought about the “new old days” that can appear in ministry.

T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옛날’을 생각해보았다.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강렬한 기억으로 미디어와 정부기관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규칙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T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옛날’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선교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의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공간이 좁아 한번에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역지에서는 숫자나 공간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모양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그룹은 연령층,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룹, 민족별 모임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아픔을 겪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방편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그룹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의 대그룹 모임과 일대일양육이 주가 되었다면, 코로나 시대에 성도 간 교제와 믿음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던 소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사역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 소그룹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소그룹은 현지인 지도자 양성 훈련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사역 현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심자가 생길 경우, 주



일 예배보다 관심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이 더욱 영향력 있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고 잘 정착되면 정치,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선교지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가 될 수 있다.

중 양육, 성경공부, 그리고 멘토링을 하면서, 온라인모임의 장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직장에서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모임을 해도 시간에 대한 족박함이 사라진다. 집에서 가족과 식사 후에 인터넷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다같이 시간을 맞추기에도 수월해졌다.

셋째, 화상 앱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중 모임이 정착되어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보안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등의 장애가 있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화상 앱을 이용해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화상 앱으로 주

이러한 온라인 방식이 모든 사역적 모임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발견하고 연습해 본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분명 사실이다. 특히 관심자를 찾아내는 인터넷 플랫폼, 지방에 거주하거나 가정의 반대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인터넷을 통해 돋는 방법을 더욱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역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동역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사역 환경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는 본부와 현장과의 국경 없는 동역이다. 지금까지는 현장과 본부가 오프라인의 만남을 계획하고 기다려왔다면,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만남은 선교 현장과 본부를 보다 더 자주, 긴밀하게 만나게 하고 의견을 나누게 해주었다.

두 번째는 현장과 파송교회와의 국경없는 동역이 가능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영어와 터키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자를 찾아내며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팀이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미국 온누리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단기팀과 단기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T국과 이 교회개척 사역을 섬긴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이 현지인 예배를 섬기는 사역에도 동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설교 뿐만 아니라 찬양인도, 주제별 세미나 등의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코로나19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한국선교사들을 아시아인(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접촉을 꺼리는 부정적인 변화들도 있다. 이것은 특히 관심자를 찾아내는 접촉과 전도 초기 단계에서는 큰 장애가 된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믿는 이슬람의 알라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로 몰려올 것을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 사역의 방법, 시스템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퍼져 나간다고 기록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듣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로 복음이 더 크게, 넓게, 강하게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기다린다.

In the post-corona era, many Muslims are asking where they believe in Islam's Allah and trying to find the answer, but they expect to find no answer anywhere and eventually come to church.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믿는 이슬람의 알라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로 몰려올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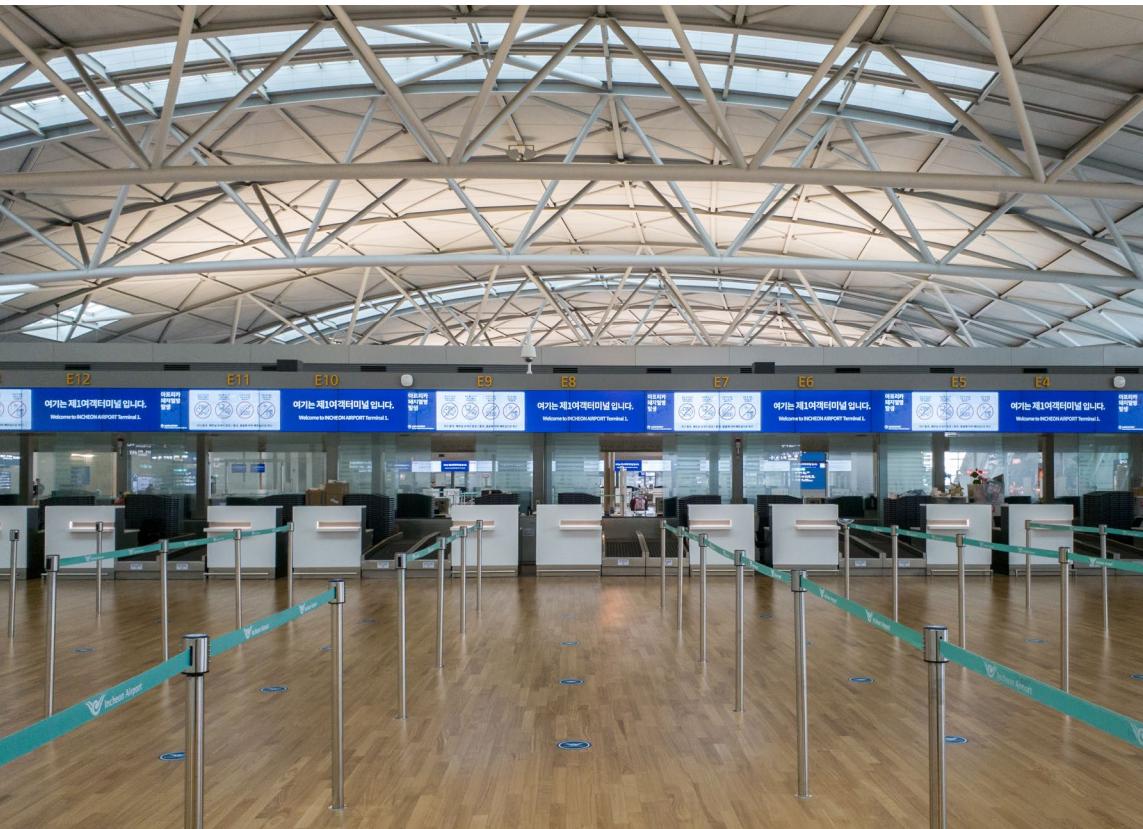




Post-Corona Mission: Have Spiritual Insights to See the Situation as Opportunities, Not Crisis

코로나 이후 선교: 위기 아닌 기회로 보는 영적 통찰력 가져야

한충희 목사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전례 없는 산사태, 코로나19

코로나19는 전세계 정치.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상(뉴노멀)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3월중순 이후 약 석달 동안 TIM 선교사 34유닛 81명이 일시 귀국 하였거나 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사역지 일시 철수는 30년 온누리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이번 초유의 사태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딥 임팩트를 줄 것이다. 한 선교사는 코로나19를 ‘산사태’(avalanche)로 비유하였다. 예상치 못한 급박한 강타와 휩쓸고 지나가는 초토화를 잘 응변한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줄 선교환경의 질적 변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우리는 영적 중간상태 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자리는 우상이 차지 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대상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제시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11:28)고 했다. 6백만명 이상의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죽음은 모두를 코로나 공포로 몰아넣지만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죄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멀려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는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 사단의 권세를 궤멸하셨으며(막1:24-25),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번 사태로 전통적으로 선진 민주국가이며 모든 면에서 세계의 기준을 선도했던 ‘서구’(western)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특히 세계 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의 책임을 두고 대립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선교 환경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미.중 양국 중 어느 편에 서도록 강요당할 수도 있으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국인 대우는 비자문제를 포함 선교사의 활동도 매우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이슬람에 미칠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지만 모스크 모임과 단체기도 및 긍휼사역이 어렵게 되고 금식 등 라마단 규율도 약화되고 메카 방문도 어려워 전반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슬람의 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온라인예배 문화가 어렵고 현장성과 행동성이 강한 그들의 신앙활동이 장기간 미흡하게 되면 내면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아랍의 봄’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피난(forced displacement) 및 이동으로 이슬람 사회가 영향을 받았다면 코로나19로 또 다른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선교의 핵심사역은 전도와 제자양육 교회개척 및 재생산과 이양이다. 코로나사태는 타문화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선교의 본질을 다시 알게 하며 교회개척이 건물과 빌딩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눈의 비늘을 벗기듯, 수건을 벗듯 더 선명하고 분명히 선교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불잡아야 하며 코로나19는 이러한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의 화두는 거리두기(distance)다. 서로 간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를 떨어트려 놓으려 한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따른 영적인 갈급함은 절대자와 창조주를 찾게 하며 결국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게 되며, 온라인상에서의 실시간 대화는 멀리하기처럼 보이지만 사이버상에서는 바로 곁에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보면 가까이하기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교현장의 모습과 사명

첫째, 코로나이후 선교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대규모 예배/모임/집회보다는 소규모 예배/모임으로 사역이 전환될 것이다. 가정중심의 전도와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예배는 소규모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일대일/셀/순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큐티 나눔도 소규모로 이루어져 소그룹사역이 커질 것이다. 전도도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규모 맞춤전도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 핵심 DNA인 큐티/일대일/순예배가 선교지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BEE(리더십 심화 성경연장교육)도 소규모 심화성경공부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개인전도 뿐 아니라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됨으로 가정 단위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온라인 예배, 소셜미디아를 통한 목양관리(큐티나눔, 성경읽기 점검, 일대일 상담, 전화심방 등), 온라인 다중대화 어플(zoom, cisco, Google meet 등) 통한 강의/기도모임/설교/순모임 등이 일상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교제와 나눔의 감성적 교감이나 은혜가 약한 단점이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고(connected) 참여할 수 있다(participate)는 장점이 있다. 평소 선교사가 일주일에 1~2번 성도를 접촉한다면 온라인 활동은 일주일에 4~5번 접촉도 가능케 하여 선교지 성도 케어와 영성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온라인의 장점은 같은 시간에 제한 없는 인원이 접속할 수 있으며 섭외가 어려웠던 유명 설교자나 복음전도자를 초빙할 수 있으며 찬양사역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여 글로벌 옴니버스 예배도 가능하다. 국내에서 전문 양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선교지 제자양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나 소규모 인원의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상당 국가가 대규모집회는 금지하나 10명 이내 모임은 관대하므로 온/오프라인 예배/모임을 적절히 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바람직하다.

After the corona,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mission field will be ministries rather than large. The importance of family-oriented evangelism and ministry will be emphasized.

코로나 이후 선교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사역이 전환될 것이다. 가정중심의 전도와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온라인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wired and connected) 네트워킹 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도가 오길 기다리는 ‘come’의 개념이었다면(상점 차려 놓고 기다리듯),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상대방에게 찾아가는 ‘go’의 개념이다(세일즈맨의 가가호호 방문과 유사).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전이 소극적이었다면 온라인이 오히려 적극적일 수 있다. 오프라인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칭하는 ‘unreached people’도 온라인으로 ‘go and outreach’가 가능해졌기에 선교적 접근(access)과 도달(reach)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전파에 긍정적인 신호다.

셋째, 소규모 강도높은 제자훈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제자훈련은 늘 중요했으나 특히 교회를 이양 받게 될 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제자양육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선교사들이 비자나 여러 행정적이고 법적인 활동제약이 있을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제자양육은 재생산과 이양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양의 시기와 조건은 각 사역지의 상황에 맞추어 잘 다루어 져야 하며, 착근이 안된 상황에서 조급한 이양은 교회를 흔들게 할 수 있고 그 반대는 자립의지와 주인의식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역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난민선교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현지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제3국에서 온 국제단체와의 동역 그리고 본부나 국내기관들과의 동역과 네트워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전략대화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교동원과 세미나 그리고 리소스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도 유용한 선교협력이 될 수 있고 온누리비전교회와 우리 선교사들과의 협력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난민/이주민 사역의 경우 중동 유럽 페르시아 터키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민족, 현지인 교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융합선교를 통해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난민이 현재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난민들에 대한 복음의 자유로운 접근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회이고 코로나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난민/이주민 선교에 특별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코로나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커지며 이를 통해 총체적 통합적 선교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healing). 인도적 지원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이번에 50여 TIM유닛을 통해 선교현장 지역주민에게 생필품과 식료품 및 방역도구 등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물론 이러한 긴급구호를 어떤 수단 적이고 조건적인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긍휼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지교회에서 현금이 줄고 있는데 이는 공예배 중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실직과 사업장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것이기에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럽다.

The need for emergency relief for the local people increases due to the difficulty of living according to the corona, and through this, the essence of overall and integrated mission is considered.

코로나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커지며 이를 통해 총체적 통합적 선교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



여섯째, 팀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지사역자들과의 동역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선교사들의 행동의 제약은 백업해줄 수 있는 팀내 다른 사역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팀원간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대처 및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TIM 본부도 이를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수년간 추진해온 전략팀(Strategic Team)의 개념과 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사역자들은 비교적 행정적이고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라인/오프라인 사역 그리고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역 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현지사역자들이 더욱 전면에 나서고(운전석에 앉고) 외국선교사들이 돋는(조수석에 앉는)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온누리의 주요사역이자 정체성인 여름 아웃리치가 올해는 어려움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선교관련 활동으로 성도들의 선교적 열정과 비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한국내 주요 선교현장 탐방으로 한국교회사 이해, 2. 현지선교사와 담당공동체간 화상기도모임, 3. 일시귀국 선교사의 선교현장소개 온/오프라인 강의와 토론, 4.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지역 및 난민선교 등에 대한 주제별/지역별 영상강의(현지선교사나 국내강사) 제공 등이 가능할 수 있겠다.

글을 맺으며

포스트-코로나 선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여호수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고 말하거나 물이 반 밖에 없다라고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롬12:2).

코로나19는 거품을 빼고 믿음의 본질,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가 지키고 불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복음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행4:12),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롬1:16). 또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딤후2:9)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안에 있기에 그분은 역사(history)를 자신의 이야기(His Story)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직접 지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요20:21) 그 위대한 선교(mission)의 위임적 사명(commission)을 자신의 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막16:15). 지금 위기는 분명 기회로 바뀔 것이다.











Wind Blowing through the Gap between Refugee Missions

난민선교의 문틈 사이로 부는 바람

이빛 선교사 / 레바논



2011년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난민들은 2015년부터 유럽으로의 이동을 시작했고, 중동 지역 난민 사역자들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6년 2월, 제1차 “중동 유럽 이주민 파리 포럼”을 시작으로 난민 사역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제1차 포럼은 중동지역 난민사역 현황과 난민에 대한

일반적 개념 및 선교적 관점에 대해 나누었다. 파리에서 진행된 제2차 포럼에는 페르시아 난민(이란, 아프간) 사역자들이 참석하면서 난민 사역 네트워크라는 형식으로 모임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후 포럼이 에이펜(A-PEN; Arab- Persian Europe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사역나눔, 교회개척, 파트너쉽을 이루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심 의제로 진행됐다. 지난 해 5차 포럼에서는 기존 난민사역의 동향과 노하우 등 의 경험을 나누면서 난민 사역에 이해가 없던 지역들

을 돌려하였고, 기존 지역에서 난민지역으로의 사역자 재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재 터키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페르시아 권역 난민들과 3백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터키 사역자들에게 난민 사역은 생소한 사역이었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난민들을 만나 새로운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터키 내 페르시아권역 난민 사역자들의 사역보고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정보 수집을 토대로 시리아 난민 사역에까지 사역의 범위를 확장해가게 되었다.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거나, 자국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국내 실향민, 정치적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7천만에 육박하는 난민들과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아랍 무슬림 국가의 전쟁과 종파 간 갈등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은 선교사역의 문을 획기적으로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디아스포라와 난민 선교 사역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존 선교사역인 미전도 종족사역에서 난민사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른 확장과 함께 난민이라는 세부적인 대상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Diaspora and refugee missions are now a reality. With the expansion of the times, the focus was on the detailed object of refugees.

디아스포라와 난민 선교 사역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시대 흐름에 따른 확장과 함께 난민이라는 세부적인 대상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2020년 6차 난민 포럼은 난민 사역의 새로운 도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스마트시대의 난민 사역” (Creative Access to Refugees)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전 포럼에서도 사역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자료들도 함께 공유했었다.

난민을 포함해 현재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스마트폰(Smart phone)을 소유하고 있고, 페이스북, 왓츠앱과 같은 SNS를 사용하고 있다. 포럼 발표자의 한 예로, 성경 배포를 위해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와 지역까지 지정해서 광고를 내고, 온라인에서 요청이 오면 성경을 보내고, 이후에 관심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교회와 연결해주는 사역을 한다. 성경배포사역만 20여년간 했으며, 현재 사용되는 도구는 페이스북 광고였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포럼의 개최여부까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포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시기에 개최된 것에 또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엔 없었던 정부의 사회 전체적인 통제로 모든 상점들, 심지어 이민국과 같은 관공서도 문을 닫았다. 난민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더 심한 통제를 받고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의 기능들은 물고를 트는 느낌을 갖게 한다. 사역자들 간에는 오히려 화상으로 먼 거리에서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된 것이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역의 플랫폼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양육과 전도, 모든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의 전 세계의 언어로 개발된 성경 앱만 보아도 그렇다.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은 현지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IT기술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현재 IT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제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스마트 시대와 난민사역”으로 모인 포럼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역이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했지만, 알게 된 후에는 각 현장에의 적용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양육과 사역 영상 촬영까지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스마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던 후이던 사역 대상자와의 오프라인 만남이 전제가 됨을 보게 된다. 어떤 도구 이든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오프라인 사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사역을 위한 기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한 시대에 사역이 그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실패의 경험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음 모임을 기대한다. 그리고 스마트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God's Mission through Missionaries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김병순 장로 / 온누리교회

지난 2월 이스탄불 A-PEN 난민포럼 참석 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모든 여행과 교류가 제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난민포럼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지함은 3개 월이 지난 지금도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제2기 온누리 선교를 위해 발족한 선교분과위원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 온누리교회의 역할에 대해 멘토링 해주신 제닝스박사의 권고와 난민 이주민선교에 관심 깊

은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선교비전을 기억하고, 이에 따른 주어진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이전 이 난민포럼에 참여하셨던 온누리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전해 받은 후, 포럼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르와이스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후 A-PEN 포럼까지 참석했던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포럼이 열린 터키 이스탄불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손총성, 천사



량, 김순종 선교사님등 공동체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책임선교사님들을 만난다는 더 큰 기대를 갖게 했다.

A-PEN 포럼은 한마디로 강행군이었다. 3일 내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속되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난민 사역”을 주제로 교단과 교파를 떠나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 선교단체,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 및 성도님들이 모두 모여 난민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눴다. 작금의 모빌리티(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전을 통해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이슬람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시간이었다. 100명이 넘는 현지 난민사역자 분들 모두 열띤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 가운데 약간은 상기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아부다비, 두바이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포함하여 22명의 선교사, 목회자, 장로들이 참여했는데, 포럼 전체 참가자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인원이었다. 다른 여러 참가자로부터 온누리교회의 선교열정에 환호를 받기도 했고 몇몇 리더들이 강사로 참여하면서 포럼은 더욱 열기를 더해갔다. 이천선교본부장인 김홍주목사님이 주 강사로 3번의 저녁집회 설교를 통해 10년간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의 사역 경험담을 겸손하고 진솔하게 나누셨고, 신임 TIM본부장인 한충희목사님은 유엔대사 시절에 다뤘던 국제정치 속에서의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전문적이고도 알기

쉽게 강의를 해주셨다. 전영수 장로님의 난민 재생산 프로젝트라는 선택강의도 한 뒷을 했다. 참가한 모든 분이 자신이 헌신했던 사역의 기간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하려는 모습에서 무슬림 난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서로의 사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가장 즐겁고, 감명 깊었고, 의미있었던 시간은 A-PEN 포럼이 끝난 뒤 TIM선교사님들과 다시 모인 “온누리 난민선교 전략회의”시간이었다. 선교사님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하는 원하지 않는 사역지를 뚫고 다니며,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셨다. 그동안 CMN단기 사역으로 많은 곳을 다녔고, 오랜 기간 교회의 여러 선교분야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시간 사역 결과만을 이루려 했던 나의 조급증을 보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는 탁상공론의 모습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었을 우리의 모습에 진심으로 회개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선교는 정말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선교는 분명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God's Plan to Scatter the Nations

열방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영광 선교사 / T국



남한의 약 7.5배의 면적을 가진 무슬림들의 나라 터키, 이 터키에서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다섯 개의 도시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TIM 사역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연중행사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역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때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의문

이 드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역지의 현실이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리도 멀고 사역도 바빠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1-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전략회의는 한편으로는 사역의 결과를 점검 받는 것과 같이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터키 전략회의 직전 A-PEN 난민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회의의 큰 주제는 난민 사역에 대한 토론과 사역의 방향으로 잡혔다. 아마도 대부분의 터키 사역자들이 난민 사역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난민들은 전쟁 혹은 가난이나 핍박을 피해서 자국을 떠난 사람들로 난민캠프에 살거나 혹은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이전의 난민사역은 단순히 이런 난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거나, 물질적 도움을 주고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난민의 개념 조차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터키의 여러 도시에 흩

어져 사는 많은 난민들은 난민캠프에 살고 있거나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과 직업도 가진 외국인 이주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지만 자녀들을 현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될 만큼,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기존의 NGO 사역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콩고, 에디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의 중동 국가에서 왔으며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일부 기독교인들도 있다. 기독교인들은 자국에서 탄압 속에 살아 이슬람 국가지만 종



Nowadays, most of them are living as foreign migrants who have a refugee "status" and also have a home and a job.

요즘은 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과 직업도 가진 외국인 이주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교활동에 심한 간섭이 없는 터키에 와서 믿음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터키사역자들은 이전까지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터키인들과 쿠르드족에 집중해서 사역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한 국가나 민족만을 품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전략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역자가 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던 난민,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전략회의가 되었다. 이제는 난민, 이주민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난민들이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자국민들뿐 아니라 터키인들에게도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세계 전도가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으로 잡게 되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세상과 역사의 움직임에 따라 선교의 흐름을 인지하여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신 신임본부장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다. 본부와의 전략회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어떤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실지 기대된다.

이제 하나님은 막혀있는 담을 헐듯이 나라들의 경계를 허무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변함없이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믿는다.











Dedicated to God's Military and Missionary Life

하나님의 군사, 선교사로 평생 헌신합니다

이예지 / FA 18기 수료자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빌 3:14

위 말씀은 2019년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뽑은 말씀입니다. 마침 담임목사님께서 제가 뽑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풋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을 향해 달려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을 한해 오직 하나님의 풋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내 삶이 다 주님의 것 이라던데… 6개월정도 한번 내 시간을 드려보지 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선교할 마음은 없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무산되고 공동체리더의 끈질긴 권유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FA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그런데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영적인 답답 함’이었습니다. 제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발을 걸친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유혹에 끌려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경말씀이 재미있거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감격이 느껴지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도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FA를 통해 6 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수 많은 염려와 교만했던 마음은 합숙훈련이 시작되고 단 5일 만에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 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제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

사로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전무후무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때에 저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김언약 선교사님의 ‘청년 선교 운동’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공동체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전부라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시야가 열방으로 넓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함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약통독을 위해 성경을 펼쳤을 땐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꿀보다 단 말씀을 내 영이 즐기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읽는 재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슬림에 관한 강의를 듣던 중, 그리스도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무슬림들은 꾸란을 달달 외우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말씀 위에 뿌리내린 정체성으로 회복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도 성경통독을 목표로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하와이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그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FA훈련 과제 중 하나는 하루에 한번씩 기도실인 시안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어색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시안홀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활짝 쏟아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어느새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인도해오셨는데, 이 시대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만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통일한국과 북한주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은 훈련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간사님,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이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화하고 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 맺은 신뢰의 관계 위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느낀 것은,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이러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캠퍼스, 공동체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

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아쉽게도 FA 18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으로 파송받지 못했지만, 3주간의 FA합숙훈련 기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보내는 새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기도, 말씀, 강의, 교제 시간으로 채워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마음 밭을 가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세우고자 했던 기대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발을 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뛰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껏 선교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선교사를 꿈꾸게 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서야 올바른 풋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God who will Change me and Change the Nations

내가 변하고, 열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신아영 / FA 18기 수료자



FA를 신청하기 전 많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혹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도피는 아닌지,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말씀으로 “가라!”고 하셨고, 확신을 갖고 FA를 신청했습니다. 양지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절 보내셨는지에 대해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확실한 답은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기 단체 카톡방에서 ‘기도릴레이’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자는 의미로 시간대별로 기도자를 정하기 시작했고,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나는 대한민국에 파송됐으니 FA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참여하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FA가 아니었다면 분명 참여하지 않았을 저였습니다. 매일 시간에 맞춰 기도할 자신이 없었고, 이 열정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따라가는 건 제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FA였기 때문에 기도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안홀처럼 방 하나를 꾸며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점차 모습은 바뀌어 갔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러나 결국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의자를 찾아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나라와 교회, 선교사님들, 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은 이 기도릴레이를 계속할 이유였습니다. 이 마음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I didn't know if I should continue to pray, but my heart that God definitely heard my prayer was the reason to continue this prayer relay.

계속해서 기도해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은 이 기도릴레이를 계속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나라나 선교사님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몽골 아웃리치에서 한 몽골인 자매에게 ‘한국에 가기 싫다, 한국은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들로 인해 제가 이 나라를 싫어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싫어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이 나라를 품게 하신 것에 감사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였습니다.

릴레이기도를 통해서 저를 FA로 보내신 몇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것, 둘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것, 셋째는 나라를 향한 마음을 회복케 하신 것, 넷째는 내가 가장 미워한 나라로 날 파송하셨다는 것, 다섯째 나는 현재 선교 중이라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절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부로 단정지울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내어드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Gospel to all peoples! Churches to all tribes!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Osaka, Higashinari-ku,
Higashiobase, 3-chōme-9-11
Higashiobase E-builder Building 3F
Tel 080-4569-7201